

# ‘천년 정사’ 편찬하고 나주목 관사·광주 희경루 복원

<正史>

## 전라도 1000년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전라도(全羅道)란 이름이 만들어진 지 오는 2018년 10월 18일로 1000년이 된다.

이에 따라 전라도를 이루고 있는 광주 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전라도 역사의 재조명을 통한 전라도 정체성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11개다. 우선 역사 재조명 사업으로는 전라도 천년 정사(正史) 편찬과 천년 문화유산 복원 사업이 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사 연구의 하나로 지역사 편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를 역사서로 내기로 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역사학회, 지리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라도 역사편찬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전라도의 역사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기록물을 수집해 수록한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도 복원한다.

전라감영과 전주부성 4대문, 나주목 관아 등을 복원하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누정 건축양식인 광주 희경루도 중건한다.

또한, 전라도를 상징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전주에 현대적 밀레니엄 파크를, 나주에는 전통적 밀레니엄 파크를 조성하고 미디어아트 창의파크·천년테마숲, 새만금 수목원 등 천년 랜드마크를 만들어 전라도 천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선보인다.

천년 기념일인 2018년 10월 18일에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열고 그해 10월15~21일을 기념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문화 학술행사를 열 계획이다.

2018년 광주 비엔날레도 ‘천년의 꿈’을 주제로 기획하는 등 다양한 특별전시회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제 수목화비엔날레 개최, 학술심포지움, 전라도 특별전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

## 창의파크·천년테마숲 등

## 밀레니엄 상징 공간 조성

##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 3개 시·도 공동 11개 사업

정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관광인프라도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외 출항인사 고향 방문의 날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라도 역사문화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엠블럼과 캐릭터 개발, 기념슬로건과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도 나선다.

전북~광주~전남을 잇는 백두대간의 우수한 생태 문화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노령산맥권·지리산덕유산권·무등산권 휴양벨트도 조성한다.

3개 시도는 우선 검토된 11개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와 재원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운영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권 3개 시도와 광주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경우 전라도민의 상생과 연대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왜곡되거나 편향된 역사를 바로잡아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전라도 천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도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전라북도 일원인 강남도(江南道)와 전라남도 일원의 해양도(海陽道)가 합쳐져 탄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9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간부진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현수 기조실장, 김진섭 1차장, 이병호 국정원장, 최윤수 2차장, 최종일 3차장. /연합뉴스

## 더민주 “회고록 까려면朴대통령 김정일 면담 기록도 공개해야”

### 국감현장-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의 19일 국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병호 국정정보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회고록의 진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건을 전제로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장은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거

### 이병호 원장 “송민순 회고록 사실이라는 느낌 받아”

때문에 NCND(공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말 어처구니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휘말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의 요체”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병기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저희는 공개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제가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벌어진 옹공 중복 의혹은 다 털고 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02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 앞서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다”면서 “가고 온 과정에 미스터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당시 자료를 요구한다”면서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일체, 김정일 면담 내용이 어떤 게 더 있었는지 방북해서 김정일과 협의한 내용 일체, 박 대통령 처음 방북하기를 받았을 때 정부에 제출한 신청서와 방북결과 보고서도 공개해서 정직하게 모두 정부에 신고했는지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구분	사업명
역사 재조명	① 전라도 천년 正史 편찬 ② 천년 문화유산 복원
인식 제고	③ 전라도 이미지 개선 및 홍보물 제작 ④ 천년기념 학술대회 및 특별 전시회 개최 ⑤ 전라도 천년 기념식 개최
기념행사개최	⑥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지정·운영 ⑦ 전라도 천년 기념상품 개발
상징공간 조성	⑧ 전라 밀레니엄파크 조성 ⑨ 천년 랜드마크 조성
생태·문화 관광 활성화	⑩ 백두대간·호남정맥 생태관광 추진 ⑪ 천년역사 문화관광 활성화

## 우병우, 국감 불출석 사유서...동행명령 의결에도 불응할 듯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21일)를 이틀 앞둔 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 수석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에서 “상기 본인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

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

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우 수석을 국감에 불러내려는 이유가 뻔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우 수석 사퇴론도 거듭 일축했다.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등 청와

## 비서실 국감 이틀 앞두고 청와대, 사퇴론 거듭 일축

대가 따وان을 부담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거나 우 수석이 본인 거취를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청와대가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광주전남로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